

건설공사 안전확보를 위한 건설기준 관리 및 개선 방향

허원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e-mail:wonhoheo@kict.re.kr

Management and Improvement Measures of Construction Standards for Ensuring Safety in Construction Works

Won-Ho Heo*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요약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확보를 위한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는 코드체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매년 정비 및 검증연구를 통해 현행화 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기준 관리 방안 외에도 건설기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환경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준서를 기술지침으로 전환하여 건설기준과 연계하는 방향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기준 사용자의 반복 질의를 분석하여 건설기준을 수정 및 개선하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1. 서론

건설공사는 안전과 품질, 경제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점에서 건설기준은 설계, 시공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신뢰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건설기준의 효율적인 적용과 관리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기준의 관리 현황과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현황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절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코드체계로 전환되어 관리되고 있다. 설계기준은 KDS (Korean Design Standard), 표준시방서는 KCS (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의 코드로 규정하고 있고 약 1,200여개의 코드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기준은 최신 법령 및 산업표준 반영, 용어의 통일, 코드간 중복 상충 검토 등 현행화를 위해 건설기준 정비 계획에 따라 제·개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도로분야, 건축시공 분야의 정비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건설사고 등 사회적 현안의 후속조치 및 구조물 안전 강화, 건설공사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조사, 실험, 해석 등을 수행하여 건설기준의 제정안 또는 개정안을 마련하는 건설기준 검증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3. 건설기준 개선 방향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기준 외에도 해설, 예시 등 자세한 내용을 제시하는 지침, 요령, 편람 등 다양한 기준서가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기준서들은 제정 이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지 않아, 개정된 건설기준과 내용의 통일성이 부족할 수 있어 실무에서 혼란 발생이 우려된다. 건설기준에서는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최소한의 규정을 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세부적이고 자세한 사항을 정하고 있고 새로운 기술을 신속하게 적용하는 기준서를 기술지침으로 전환하여 건설기준과 연계하는 개선 방향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설기준 개선은 정비, 검증연구 외에도 건설기준 사용자의 반복 질의를 분석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통해 수정하여 개정 추진하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건설기준 관리를 위한 정비연구, 건설기준 검증연구에 대해 소개하였고, 건설안전 강화, 새로운 기술의 신속한 적용 등 건설환경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기준과 연계하는 기술지침의 필요성과 기준 사용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는 방식의 개선 방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참고문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2026), 2025년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연구보고서.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26년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건설기준 개발운영 연구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에 감사드립니다.